

1. Welcome to JOYLAND!

유치부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2. " 나는 예배자 인증샷 올리기!"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로 한달 동안 보내주신 인증샷을 모아 "나는 예배자" 코너로 소개됩니다. 매주일 아이들이 서로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am a worshipper!"

Have a family worship through our online service and take a picture. Post it on your class group chat or send it to your teacher. We welcome all our children who are coming out to worship the lord even in these diffidult time. Those who participate will receive 50 talents each Sunday! Click **유치부 예배 현황** at bkc.org

3. 어제 8월 29일(토)에 유치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학년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가족, 선생님, 전도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 9월 5일에는 크레프트 픽업과 동시에 Award store를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4. 유치부 온라인 예배: 함께 만들어 가요~!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코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 혹은 비디오로 찍어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그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친구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기쁨이 아주 클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자칫 말그대로 "예배를 보는" 수동적인 예배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vent Calendar 유치부 행사 계획

- 8/01 Craft drive thru
- 8/29 졸업식 및 Award store only for the graduate
- 9/05 Craft drive thru & Award store 생일 축하

Offering Prayer 헌금 기도 위원

	2nd	3rd
-----	-----	-----
-----	-----	-----



■ 유치부 예배 안내

장소 : 조이채플 E-152 /시간 : 9:15AM & 11:30AM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Rev. Bryan Kim, Lead Pastor
 유치부: 이승진 전도사 /joyland@bkc.org
 팀장: 김병수 집사/ bert3315@gmail.com 714) 308-8574



베델교회 유치부

JOY in Joyland stands for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유치부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Although this world is full of selfishness and individualism, we need to remember that Jesus is the first, other people come second, and then we are third in our life. Therefore, our ministry vision is to help our children to grow up to love Jesus and then to pray for each other as the order in their life.

Memory Verse For This Month

아래 성경구절을 각 반 선생님 앞에서 외워주세요! (Recite the following verse to your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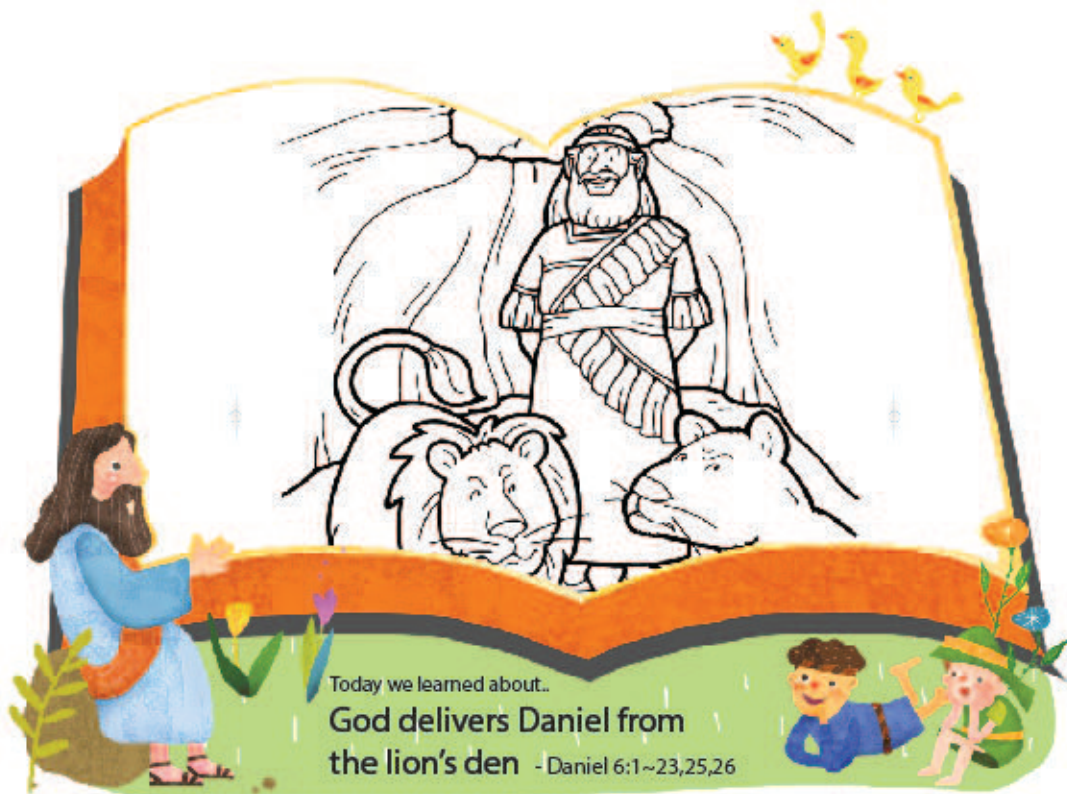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I want you to enjoy success. I do not plan to harm you. I will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4)

You can earn Talents by:

1. On Time
2. Attendance
3. JOYLAND Home Activity
4. Memory Verse
5. Bring the Bible

10 Talents

8.30.2020 Name: _____



Today we learned about.

God delivers Daniel from the lion's den - Daniel 6:1~23,25,26

Lesson Questions



1. What did Daniel do three times every day?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꼭 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Prayed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2. What kind of law did the king's other helpers get King Darius to write?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만들라고 한 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 If anyone in the kingdom prays to anyone other than the king for a month then they would be thrown in a lion's den.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어요.
3. Why did Daniel not die in the lion's den?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나요?
-> God sent an angel to shut the lions' mouths.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Bible Story Activity



Daniel loved God and prayed to Him every day. In fact, he prayed three times every day. Daniel knew that praying to God was a right thing to do. There were some mean men who did not like Daniel. They went to the king and said, "King, we think you should make a rule that everyone must pray only to you. If people pray to anyone else but you, they will be thrown into a cave filled with lions!" The king thought this was a good idea.

The next day Daniel prayed to God. The mean men watched as Daniel prayed to God. Then they ran to tell the king what they saw. The king was sad. Daniel was his friend. The king knew he had been tricked into hurting Daniel. But the king had to obey the rule, too. Daniel was put into a big cave where hungry lions lived.

All night the king worried about Daniel. The next morning, the king ran to the lions' cave. He called, "Daniel! Daniel!" Daniel called out, "King, I am safe. The Lord God took care of me!" The king was so glad that Daniel was not hurt. Then the king told everyone what God had done.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에 세 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할 경우,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자구요!" 왕은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일른 왕에게 뛰어가 자신들이 본 것을 일렸어요.

왕은 다니엘을 친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슬펐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왕도 법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 다니엘!" 왕이 사자굴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왕은 다니엘이 무사하다는 것에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